

# 광주 지하상가·지하철역, 폭염 속 노인 휴식처 '각광'

‘만남의 광장’ 빈 자리 찾기 힘들어 장기·바둑·TV 시청하며 여가 즐겨 “무더위에 마땅히 갈 장소 없어서” 경로당·복지관 텃세·비용 부담 호소 전문가 “노년층 여가시설 확충을”

“밖에 돌아다니면 쓰러져요. 쓰러져. 여기 있으면 더위도 피하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있으니 즐겁죠. 텃세 부리는 노인복지관보다 훨씬 나아요. 앞으로도 자주 올 생각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광주광역시 폭염 속에서 광주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과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 상무역 등이 노년층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곳은 수년전부터 여름철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물려앉을 곳 찾기가 힘들 정도다.

15일 오전 찾은 동구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는 이른 아침임에도 수십명의 노인들이 모여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광장 한편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노인들은 저마다 흠어져 자리 잡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먹거리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다만 에어컨 바람은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 노인들은 부채질을 하거나 연신 땀



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더위에 지친 노인들이 광주 서구 상무역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옷을 털리고 있었으며 한편에는 누워서 잠시 쪽잠을 자는 노인도 있었다.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경로당의 ‘텃세’가 싫거나 무더위 쉼터를 찾으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눈치에 밀려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만남의광장은 기본적인 공중도덕만 지키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폭염도 피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진정된 쉼터다.

남구에 거주하는 김순길(80)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경로당은 불편하고

이런 날씨에 마냥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서 지하상가를 찾았다”며 “누구의 눈치 안보고 시간 보내기에 딱 좋다”고 말했다.

아침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신모(77)씨는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나가니까 여기로 온다”면서 “이곳에서는 비슷한 연배들끼리 급세 친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다. 해가 지고 더위가 누그러지면 집에 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만남의광장이 대화나 쪽잠 등으로 인기

가 있다면, 금남로 4가역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엔터테인먼트 명소다.

만남의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금남로 4가역에는 장기와 바둑 등을 두는 노인들로 항상 북적인다. 이곳에는 카페처럼 식탁과 의자가 있어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다. 승부를 하는 이들 외에도 옆에서 훈수 두는 이들과 함께 있어 항상 시끌벅적하다.

서구 상무역의 ‘무더위 쉼터’도 인기다. 이곳은 천장에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

어 많은 노인들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는 박경애(79)씨는 “더위를 피하려 이곳에 자주 온다. 최근에는 비가 내려 좀 덜 덥지만, 그래도 비나 강한 햇빛을 피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다”며 “친구들에게도 이 장소를 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고객센터 직원은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다 보니 정확한 숫자는 집계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 여가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성 북구 우산종합사회복지센터 관장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은 그 근처에 사는 노인분들만 이용하다 보니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은 마땅히 쉴 장소가 없어 지하 공공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설 공간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복지관 사용이 부담스러워 지하상가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상가 등 노인밀집 지역에 안내소 설치 및 상담을 운영하는 등 쉼터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 광주지검, 요양병원 점거한 노조원에 징역형 요구

공공시설 방해 혐의 적용

광주광역시 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

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적법한 쟁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병원 로비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이라며 “입금이나 일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도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거나 수술·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

조원들로 2023년 6월14일부터 9월6일까지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로비 등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이후 임금체제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 약 80일간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 광주 공립고 정교사가 기말고사서 문제지 베껴

광주광역시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정교사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지를 그대로 베껴 감사실이 나섰다. 해당 시험은 결국 다시 치러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실시한 광주 A고 기말고사의 1학년 수학 시험지 일부 문항에 대한 민원이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 제기됐다.

해당 민원에 따르면 22문항 중 12문항이 문제지를 그대로 베껴왔다고 명시됐다.

### 법원 “시내버스 신차 구매 카드포인트도 수입… 환수 정당”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로, 시 감사위는 2023년 연말 정산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약 12억3000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신차 구매로 발생한 카드포인트 약 1861만원도 포함됐다.

### 광주 한 도로서 60대 운전자가 전신주 들이받아 43세대 정전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일대 주택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일대 주택단지 43세대가 정

이에 시교육청이 학습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인했다.

학교 측과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에 통보하고 감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의 행위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 목포서 시각장애인 변압기 충돌... ‘한전 책임’ 법원 2심도 인정

“변압기 크기 봤을 때, 문제 예상 가능”

길을 걷던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측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A(50대)씨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

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인도를 걷던 중 도로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부가 찢어졌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변압기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전력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원고는 일반 보행자에 비해 거동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변압기의 크기가 상당하고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 순천 주택서 화재, 2700여만원 재산피해 추정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에 순천시 외서면 한 주택 및 비닐

하우스에서 불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 인력 53명을 투입해 2시간 15여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전소되는 등 소방추산 2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전이 됐으며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전은 이날 중으로 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철 기자